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1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요한일이삼서 · 유다서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시편 111편 ~ 시편 114편
- 14 1과 영원한 언약의 떡
- 22 매일성경묵상 시편 115편 ~ 시편 120편
- 30 2과 태초에 하나님이
- 38 매일성경묵상 시편 121편 ~ 시편 126편
- 46 3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 54 매일성경묵상 요한일서 1장 ~ 요한일서 5장
요한이서 1장
- 62 4과 완전한 창조의 결국
- 70 매일성경묵상 요한삼서 1장,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 요한계시록 3장
- 76 부록 모세

「충현의 만나」는
가정예배·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

January 2014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1 시편 111편 신년감사예배
5 제1차 성찬식	6 시편 115편	7 시편 116편	8 시편 117편
12	13 시편 121편	14 시편 122편	15 시편 123편
19	20 요한일서 1장	21 요한일서 2장	22 요한일서 3장
26	27 요한삼서 1장	28 유다서 1장	29 요한계시록 1장

2

Febr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시편 112편

3 시편 113편

4 시편 114편

9 시편 118편

10 시편 119편

11 시편 120편

16 시편 124편

17 시편 125편

18 시편 126편

23 요한일서 4장

24 요한일서 5장

25 요한이서 1장

30 요한계시록 2장

31 요한계시록 3장

교회 주요 일정

1월 1일

신년감시예배

1월 5일

제1차 성찬식

나의 주요 일정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창조주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HOLY BIBLE

수요일

시편 111편
찬송가 552장

독상노트

시인은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는 존귀하고 엄위하며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크심을 즐거워하는 자는 모두 다 그것을 기린다고 노래합니다(1~3절). 그는 여호와와는 은혜로 우시고 자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찬양합니다(4~5절). 시인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진실과 정의와 확실한 법도로 행하시고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고 선포합니다(6~9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0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무엇도, 또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의로우십니다.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와 자비를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의로우심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대시 111: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ll who follow his precepts have good understanding. To him belongs eternal praise.(Ps. 111:10)

• 기리는도대(2절) : 찬심전
력하여 열심히 찾고 조
사하다.

기도제목

① 2014년에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② 총현교회기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를 경외하라

2

목요일

시편 112편

찬송가 67장

묵상노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한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1~4절).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며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선포한 시인은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볼 것이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5~9절). 그는 악인은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10절).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재물을 안겨다 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12:1)

Praise the LORD.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 who finds great delight in his commands. (Ps. 112:1)

• 흑암(4절) : 재난과 고통의 시기

기도제목

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3

금요일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찬송가 65장

묵상노트

시인은 여호와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1절). 그는 영원까지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2~3절).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으며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찬양합니다(4~9절).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모든 곳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멈추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주님만을 늘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먼지 더미, 거름 더미(7절) : 비천한 상태, 극도의 가난과 궁핍

여호와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대(시 113:4)

The LORD is exalted over all the nations, his glory above the heavens.(Ps. 113:4)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4

토요일

시편 114편

찬송가 310장

묵상노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1~2절). 그는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양처럼 뛰어놀았다고 말합니다(3~4절). 시인은 바다와 요단과 산들과 작은 산들에게 어찌 도망하고 물러갔으며 숫양과 어린 양들같이 뛰어놀았는지 묻습니다(5~6절). 계속해서 그는 땅에게 반석을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신 아곡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선포합니다(7~8절).

구약의 위대한 구속 사건인 출애굽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으로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일들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아곡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시 114:1~2)

When Israel came out of Egypt, the house of Jacob from a people of foreign tongue, Judah became God's sanctuary, Israel his dominion. (Ps. 114:1~2)

기도제목

- 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언어가 다른 민족(7절) :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민족, 애굽 백성.

기도노트



성찬의 이해

성찬을 보통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가톨릭의 화체설, 루터교의 공재설, 찰빙글리의 기념설, 개혁신교회의 영적 임재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장로 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은 영적 임재설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전에 있어서는 거의 기념설로 이해한다. 그 결과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가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있다. 예수님의 참된 몸을 먹는다는 성찬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와 그분의 은혜를 자각하게 하는 도덕적, 영적 적용이 주가 되어 버렸다.

영적 임재설이란 일단 '영적으로 임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하신다' '영적 교제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영으로 임하신다' 정도로 딱에 정확히 무엇이 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이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임재설을 실재적 임재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실재적인 몸은 성찬과 별 관계가 없게 되어 버렸다.

영적 임재설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혹은 참으로 떡에 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임재설은 전달 내용에 있어서는 실재적이고,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영적이다. 그러므로 영적·실재적 임재설이 보다 정확한 개념이다.



개혁신학이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임재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한다. 또 이 사역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따라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입을 통하여 정말로 떡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참 몸을 정말로 먹는다. 그래서 믿음을 영혼의 입이라고도 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 즉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그대로인 채 자신의 몸을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마치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말이다.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지는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 즉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영원한 언약의 떡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라

| 찬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 본문 | 레위기 24: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5 주일

6 월요일

☐ 시편 115편

7 화요일

☐ 시편 116편

8 수요일

☐ 시편 117편

9 목요일

☐ 시편 118편

10 금요일

☐ 시편 119편

11 토요일

☐ 시편 120편

※ 매일 하루도 빠짐 없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매주,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규례들을 평생 지켜야 했습니다. 규례마다 매일 혹은 일주일 또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에 따라 해야 할 일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항상 진설할지니

성소 안에 있는 열두 개의 떡은 언제 여호와 앞에 진설(陳設)합니까?

레 24:8 _____

*진설 :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음.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다 항상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날과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출 20:8 _____

레 23:3 _____

※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항상 거룩한 떡을 진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위임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마다 항상 떡을 진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습니까?

레 24:8 _____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 8:2~3 _____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귀중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 6:33 _____

예수님 시대에도 만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6:30~31,34 _____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하게 될 떡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된 떡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참고 요 6:35~36).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나와 자신을 대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언약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6:48~51 _____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6:55 _____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십자가의 새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눅 22:19~2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십자가의 새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든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죄와 형벌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6

월요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5편
찬송가 413장

묵상노트

시인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못 나라의 우상들은 은,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고 걸지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8절).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집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9~11절).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12~13절). 시인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14~15절). 그는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음을 알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합니다(16~18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헛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시 115:11)

You who fear him,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shield. (Ps. 115:11)

• 적막한 데(17절) : 죽음의 처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기도제목

- 1 지금껏 의지하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 2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1~2절). 그는 고통과 환난과 슬픔 중에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건져 주시기를 구했습니다(3~4절). 시인은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5~6절). 그는 주께서 그를 후대하셨고 그의 영혼을 건지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7~9절). 그는 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믿었고 그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노라고 말합니다(10~14절). 시인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주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결박을 푸신 것을 감사하며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5~19절).

시인은 사망과도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주의 깊게 돌보아 주셔서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지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르는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시 116:10)
I believed; therefore I said, "I am greatly afflicted." (Ps. 116:10)

• 순진한 자(6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기도제목

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② 십자가로 핏물로 풍성한 신성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8

수요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시편 117편
찬송가 92장

묵상노트

시인은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1~2절).

시편에서도 가장 짧고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마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시인이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은 이스라엘에게서 확장되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의 크기와 영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찬양받으시던 하나님은 초대 교회 이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원히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 크시고(2절) : 이기다, 굳게 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의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할렐루야 (시 117:2)

For great is his love toward us, and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Praise the LORD. (Ps. 117:2)

기도제목

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 감사하라

9

목요일

시편 118편

찬송가 269장

묵상노트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기를 요청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서서 고통 중에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1~7절).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노래합니다(8~9절). 시인은 못 나라가 그를 에워싸고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려 하였어도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0~14절). 그는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그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15~18절). 시인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19~21절).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주를 높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22~29절).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대적들이 강한 힘으로 그를 공격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도우셨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을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죽음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 118:29)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 118:29)

• 머릿돌(22절) : 벽의 모퉁이를 고정시키고 일렬로 맞추기 위한 돌.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

기도제목

- 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10

주의 말씀은

금요일

시편 119편

찬송가 200장

묵상노트

시인은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1절). 그는 청년들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확신합니다(9절). 그는 자신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36절). 또한 시인은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합니다(71절). 그는 그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그를 핍박하였지만 그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86~88절). 시인은 주의 말씀이 그의 입의 꿀보다 더 달고(103절), 주의 말씀은 그의 발의 등이며 그의 길의 빛이 된다고 고백하며(105절),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127절). 그는 환난과 우환이 다가왔으나 주의 계명으로 즐거워합니다(143절). 또 그는 잃은 양같이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76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대부분의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고백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계 1:3).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율법(1절)** : 시편 119편은 같은 의미의 여덟 단어를 사용한다. 율법, 증거, 법도, 교훈, 계명, 규례, 율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Ps. 119:105)

기도제목

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11

토요일

시편 120편
찬송가 96장

묵상노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거짓된 말에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1~2절). 그는 속이는 혀에게 하나님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렘 나무 숲물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3~4절). 시인은 화평을 미워하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자신에게 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인이 화평을 원할 때에도 싸우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5~7절).

거짓말로 고발하며 계속해서 싸우려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그의 대적들로부터 무고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시인을 공격합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자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고 분쟁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화평이 아닌 분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분쟁을 일으켜 이런 것들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인들의 거짓과 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 곧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엡 2:14).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시 120:1)
I call on the LORD in my distress, and he answers me. (Ps. 120:1)

• 화살, 숲물(4절) : 무기로서 하는 날카로운 화살이고 타오르는 불이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제서야

이제서야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나에게 어려움과 고달픈 삶 속에서
낙심되고 쓰러질 때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서야 나의 연약한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서야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임을 혹시 알까봐 눈치를 보던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작은 마음의 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이 세상의 좋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쉴 곳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성욱(안수집사, 6교구)

2

주간총현에 게재된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의 시작을 믿으며 계획하라

| 찬송 |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본문 |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2 주일

13 월요일

☐ 시편 121편

14 화요일

☐ 시편 122편

15 수요일

☐ 시편 123편

16 목요일

☐ 시편 124편

17 금요일

☐ 시편 125편

18 토요일

☐ 시편 126편

※ 사도신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외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창조자와 피조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자리가 다릅니다.

창조주의 위치 : 피조물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

골 1:16 _____

사 43:21 _____

빌 4:20 _____

피조물의 위치 : 창조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림

고전 10:31 _____

벧전 4:11 _____

※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소요리문답 문1. 참고)

주인과 청지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는 권위와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는 명령하십니다.

창 1:27~28 _____

인격체가 아닌 피조 세계도 이에 순종합니다.

막 4:41 _____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 세계도 이에 순종합니다.

막 1:27 _____

※ 청지기 혹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눅 17:10 _____

시작과 끝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롬 11:36 _____

사 44:6 _____

계 22:13 _____

하나님은 개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 역사의 시작이 되십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실 분이십니다. 이렇듯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 올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그 계획을 제일 많이 의논합니까?

역사와 삶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 1:1~3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특히 인류 구원 역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행 4:12 _____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만 거듭난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고후 5:17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계획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③ 가정과 구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18

시편 121편
찬송가 400장

묵상노트

시인은 그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스스로 대답합니다(1~2절).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3~4절).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라고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며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5~8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에게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실족하여서 다시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조롱합니다(왕상 18:27). 이처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헛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도움되시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해, 달(6절) : 낮이나 밤이나 괴롭히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대시 121:2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Ps. 121:2)

기도제목

①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믿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기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4

화요일

시편 122편

찬송가 236장

묵상노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 기뻐하였던 다윗은 자신의 발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섰노라고 말합니다(1~2절). 그는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으며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보좌를 두셨노라고 노래합니다(3~5절). 이어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간구하겠노라고 말합니다(6~9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을 위해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예루살렘은 그저 수많은 도시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도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시 122:1)

I rejoiced with those who said to me,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Ps. 122:1)

• 여호와의 집(1절) : 여기
서는 성전

기도제목

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123편
찬송가 343장

묵상노트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고 말합니다(1절). 그는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2절). 이어서 그는 여호와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로 가득찬 자신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3~4절).

시인은 그의 대적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시인은 종들이 그들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특히, 대적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자라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들은 그들의 상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전의 손만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상전의 명령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종들은 그 순간 그들의 시선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상전의 손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보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선에서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마 14:29~30).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 안일한 자(4절) : 영적, 도덕적으로 부주의하고 나태한 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다(시 123:1)

I lift up my eyes to you, to you whose throne is in heaven. (Ps. 123:1)

기도제목

①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16

목요일

시편 124편

찬송가 383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어찌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1절),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아니었으면 대적들이 자신들을 산 채로 삼켰을 것이고 물이 그들을 휩쓸었을 것이며 또 넘치는 물이 그들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2~5절). 그는 자신들을 대적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의 찬양 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그들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노래합니다(6~8절).

여호와께서 강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강력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비참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강한 대적들의 공격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강성하고 포악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대적들 역시 포악하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벧전 5:8).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시(124:1)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let Israel say--(Ps. 124:1)

• **물(4절)** :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대적들의 강한 세력

기도제목

①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시편 125편
찬송가 401장

독상노트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1~2절). 그는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3절). 시인은 여호와께 선택한 자와 정직한 자를 선대해 주시기를 구하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4~5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산이 그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두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자신의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불로 둘러싸인 성곽처럼 그의 백성들을 둘러싸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스 2: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자리가 아닌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고 (시 125:2)

As the mountains surround Jerusalem, so the LORD surrounds his people both now and forevermore. (Ps. 125:2)

• 악인의 규(3절) : 강력하고 악한 대적들의 통치

기도제목

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태부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그 때에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한 시인은 그 때에 그들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찬양이 가득 찼었으며 기쁨으로 찬만하다고 노래합니다(1~3절). 그는 여호와께 포로들을 남방 시내처럼 돌려 보내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4~6절).

시온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의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마치 꿈에 시만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고 그 때의 기쁨이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귀환과 회복이 완성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씨를 뿌릴 때는 고난과 수고가 뒤따르겠지만 추수 때의 기쁨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때가 이르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6)

He who goes out weeping, carrying seed to sow, will return with songs of joy, carrying sheaves with him. (Ps. 126:6)

• 남방 시내(4절) : 유대 남부 사막지대에 있는 우기에만 형성되는 시내. 우기에 시내가 다시 흐르는 것처럼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구한다는 뜻.

기도제목

- 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예언 구절	내용	성취 구절
창 3:15	여자의 후손	갈 4:4
창 12:3	아브라함의 씨	마 1:1
창 17:19	이삭의 후손	눅 3:34
민 24:17	아람에서 나온 한 별	마 1:2
창 49:10	유다 지파 출신	눅 3:33
사 9:7	다윗 왕좌의 후계자	눅 1:32
시 45:6~7	기름부음 받은 영원한 왕	히 1:8~12
미 5:2	베들레헴 탄생 사건	눅 2:4~5,7
사 7:14	동정녀 잉태	눅 1:26~31
단 9:25	탄생의 시각	눅 2:1~2
호 11:1	애굽 피난	마 2:14
렘 31:15	유아 학살 소동	마 2:16~18
사 40:3~5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함	눅 3:3~6
말 3:1	선구자의 예비	눅 7:24,27
말 4:5~6	엘리아의 미리 옴	마 11:13~14
시 2:7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	마 3:17
사 9:1	아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	마 4:13~16
시 78:2~4	비유로 말하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심	마 13:34~35
신 18:15	선지자를 일으키심	요 6:14
사 61:1~2	상한 심령의 치유자	눅 4:18
사 53:3	동족 유대인의 멸시와 버림받음	요 1:11
시 110:4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	히 5:5~6
속 9:9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막 1:7,9,11
시 8:2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	마 21:15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의 예언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구약 시대를 관통하며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께서 성육신(Incarnation)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성육신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조율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예정된 대로 일어난 것임을 증언해 준다. 또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구원은 그저 관념적 허구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예언이 전 역사를 관통하며 계속되어 바로 나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과 훗날 최후 심판까지 진행될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하여 살펴보자.

예언 구절	내용	성취 구절
사 53:1	세상의 불신	요 12:37
시 41:9	가까운 친구인 제자들의 배반	눅 22:47~48
속 11:12	은 삼십에 넘기우심	마 26:14~15
속 11:13	토기장이의 발 값에 팔리심	마 27:6~7
시 109:7~8	배신자 유다의 운명	행 1:18~20
시 35:11	거짓 고소를 당하심	막 14:57
사 53:7	곤욕 당함에도 침묵하심	막 15:4~5
사 50:6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고 매 맞으심	마 26:67
시 35:19	까닭 없이 미운 바 되심	요 15:24
사 53:5	찢리고 상하고 채찍 맞으심	롬 5:6,8
사 53:12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심	막 15:27
속 12:10	손발을 찢리심	요 20:27
시 22:7	멸시와 수치를 당하심	눅 23:35
시 69:9	비방 당하심	롬 15:3
시 69:21	쓸개와 신 포도주를 받으심	요 19:29
시 109:4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	눅 23:34
시 22:17~18	그 옷이 제비 뽑혀 나누임	마 27:35
시 22:1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심	마 27:46
시 34:20	그 뼈가 꺾이지 않으심	요 19:33
속 12:10	옆구리가 찢리심	요 19:34
사 53:9	부자처럼 장사되심	마 27:57~60
시 16:10	부활하심	막 16:6~7
시 68:18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막 16:19

3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의 과정을 들으며 따라가라

| 찬송 |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 본문 | 창세기 1:2~4a

^{2a}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a}“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a}“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9 주일

20 월요일
요한일서 1장

21 화요일
요한일서 2장

22 수요일
요한일서 3장

23 목요일
요한일서 4장

24 금요일
요한일서 5장

25 토요일
요한일서 1장

※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발견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 19:1~4 _____

만물의 근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순한 표현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한 마디 말씀이 모든 실재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 창세기 1장을 펴고 다음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창 1:3,6,11,14,20,24,26)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히 11:3 _____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롬 1:20 _____

모든 법칙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 역시 하나님께
서 정하셨습니다.

욥 28:26 _____

욥 38:33 _____

하나님은 모든 법칙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
니다.

왕하 20:10~11 _____

인생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창 1:26~28 _____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 2:7 _____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주신 것은 또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

히 1:1~2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병자에게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풍량이 잔잔하게 되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됩니다.

고전 15:2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 ③ 교회의 천국일꾼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5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요한일서 1장
찬송가 326장

묵상노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며(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술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잊기 쉬워지고, 예수님을 잊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는 가운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4절), 성도를 격려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5절). 그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이 극렬함으로 주님이 전적으로 의로운 분이심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말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말합니다(7절). 그리고 그 반대도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9절). 사도 요한은 그 죄에 대해서 '범죄'(10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다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개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 행하면(6절) :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그 계명 안에 행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했다. 요한은 순종은 행함이라는 것을 말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Jn. 1:9)

기도제목

- ①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1

화요일

요한일서 2장
찬송가 255장

묵상노트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합니다(18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으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22절).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였습니다(4절).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인정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다른 어떤 것,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7절). 아버지를 안다는 것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유는 바로 주님만을 의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자신의 공로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1 Jn. 2:1)

• 대언자(1절) :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이며 ‘변호사’, 또는 ‘중보자’ 그리고 ‘보혜사’로까지 번역이 가능하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대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변호했다(출 32:32).

기도제목

① 오직 주님 안에 가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요한은 성도에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2절).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1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5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범죄하지 않습니다(6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중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9절).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어떤 시험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9절).

우리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13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11절). “가인 같이 하지 말라”(12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18절).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과 공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요일 3:1)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1 Jn. 3:1)

기도제목

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7~8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1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사랑했습니다(21절).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6절).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분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비슷하고 또한 실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혹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다는 것 또한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11절). 그 사랑은 우리가 미혹의 영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었습니다(17절). 미혹이 영이 온다면 진리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하게 함을 아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6)

We are from God, and whoever knows God listens to us; but whoever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This is how we recogniz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falsehood. (1Jn. 4:6)

• 영을 다 믿지 말고(1절) :

요한은 영감이 실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 안에서 역서하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할 때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도우시사 진리의 영을 붙들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요한일서 5장
찬송가 449장

묵상노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7절). 성령과 물과 피는 성령의 임재와 세례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상, 즉 자신의 신념과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12절). 그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13절). 그러므로 우리는 구할 수 있으며(14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할 수 있습니다(16절). 요한은 주님이 성도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18절).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19절).

영지주의가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영으로 믿으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 합리적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해로 되는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십니다(20절). 사람의 삶과 죽음을 누구도 논리적으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자산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삶의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의 대답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21)
Dear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1Jn. 5:21)

• **우상(21절)** :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형상에 분향해야 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타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였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기도제목

① 우상을 멀리하며 자신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25

토요일

요한에서 1장
찬송가 600장

묵상노트

요한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1절).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쁜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은혜와 공훈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도의 기쁨은 사랑이며,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온전한 상을 바라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8절).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함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혹을 받은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친히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훈과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도는 그런 어려움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공훈과 평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모함은 악에 대한 단호함과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롬 16:19). 악을 대적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가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12)

I have much to write to you, but I do not want to use paper and ink. Instead, I hope to visit you and talk with you face to face, so that our joy may be complete. (2Jn. 1:12)

• 종이와 먹(12절) : 편지는 개인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나 연설을 하는 것보다 못한 대응물로 여겨졌다. 보통 편지는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더 논의하지는 약속으로 맺었다.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가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제사, 왜 안 되는가!

이제 곧 설날(1월 31일)이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날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는 마귀들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와서 차려 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한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눅 16:19~31). 우리는 지옥에서의 절규 때문에라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죽은 조상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제사 지낼 때 오는 것은 마귀들이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전 10:20).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들고, 병을 주며, 살인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마귀가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를 자주 지내는 사람들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을 참소하게 되고(계 12:10), 대적하며(벧전 5:8), 악해지고(요일 2:13), 거짓말하게 되며(요 8:44), 병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교제하게 만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완전한 창조의 결국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며 안식하라

| 찬송 |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 본문 | 창세기 2:1~2

❶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❷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6 주일

27 월요일

☐ 요한심서 1장

28 화요일

☐ 유다서 1장

29 수요일

☐ 요한계시록 1장

30 목요일

☐ 요한계시록 2장

31 금요일

☐ 요한계시록 3장

1 토요일

☐ 시편 127편

※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시 34:8 _____

좋았더라

하나님의 “다 이루셨다”, “마치셨다”, 또는 “안식하시니라”는 선언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마다 그 결과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창세기 1장을 펴고 다음 구절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창 1:4,10,12,18,21,25,31)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과 결과는 언제나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54:6 _____

완전한 평화

하나님의 “다 이루셨다”, “마치셨다”, 또는 “안식하시니라”는 선언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완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식을 주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계 21:4~7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 12:8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잃어버린 안식을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9:30 _____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의 영광과 권능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날입니다.

계 21:4 _____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천국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창조의 완성을 소망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종현교회의 5대 목표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
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월요일

요한삼서 1장
찬송가 218장

묵상노트

요한삼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로 가이오라 하는 한 교회 지도자를 향한 편지입니다(1절). 가이오는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대했습니다(5절). 그는 전혀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고,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가이오의 손길을 이야기했으며(6절), 요한은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었을 것이며 그들은 이방인에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맞이하여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한 지도자인 디오드레베를 향해 으뜸 되기를 좋아했다(9절)고 말합니다. 그는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도리어 돕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10절). 분명 이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나열하며 편지를 마치면서 이러한 언급이 결국 이 사람, 데메드리오를 위한 추천서임을 말합니다. 그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12절). 디오드레베로 인해 이 데메드리오도 교회에서 내쫓감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를 막기 위해서 추천서를 씁니다. 성도 안에 있는 책망과 격려와 위로와 권고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며, 악한 것을 본받지 않으며 선한 것을 본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 우리도 증언하노니(12절)
: 이것은 데메드리오를 위한 추천의 말이다. 디오드레베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를 위해 추천서를 썼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삼 1:11)

Dear friend, do not imitate what is evil but what is good. Anyone who does what is good is from God. Anyone who does what is evil has not seen God.(3Jn. 1:11)

기도제목

① 믿음의 식구가 있음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도우며 선한 것을 본받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안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의 친동생이었지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1절) 표현하며, 구원(3절)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베드로전후서에 나오는 것과 흡사했지만, 유다는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3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누구도 이 정도까지 될 기라 생각하지 않았을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몇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4절). 이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8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16절). 유다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18~19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합니다(21절). 예수님이 계십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계십니다(24절). 구원에 관하여 바라본다면 힘써 싸우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 1:3)

Dear friends, although I was very eager to write to you about the salvation we share, I felt I had to write and urge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to the saints. (Jude, 1:3)

기도제목

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흥천교회의 재단들(유지·통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암초(12절) : 암초 또는 숨겨진 암초(hidden reefs - ESV)라 하는 이것은 현혹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피해 배를 멀리 항해시키지 못한 선원들을 죽게 만들었다.

29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찬송가 174장

묵상노트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 있었습니다(9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사람도 없는 유배지에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10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고(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중심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7절).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특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보게 되는 신비함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일곱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았습니다(13~15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1절).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3절) 말하는 이유는 성도의 소망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이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가 받는 계시는 특별합니다. 세상에서의 계시는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도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 에베소(11절) : 요한의 책을 전달하는 사신은 먼저 에베소에 도착할 것이다. 다른 도시들은 전달하는 사람이 걸어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교회를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배열한 것은 실제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순서의 특별함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계 1: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what must soon take place. He made it known by sending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Rev. 1:1)

기도제목

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실로 말씀을 붙들며 읽고 듣고 지켜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1)

30

목요일

요한계시록 2장

찬송가 301장

묵상노트

요한이 각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이 선포됩니다(4~5절). 서머나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하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합니다(10절).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으며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13절). 그러나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운 그 때에 회개하라는 명령이 선포됩니다(16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말하며,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주님의 값으심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20~23절).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합니다(25절).

각각 다른 내용과 다른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편지에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각 편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7, 11, 17, 29절)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들은 각각 따로 따로 보내지기보다는 모든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같이 보내졌을 것입니다. 이 편지들에는 또 한 가지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편지 말미에 “이기는 그에게는”(7, 11, 17, 26절)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통해서 성도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롬 12:21),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Rev. 2:17)

기도제목

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흰 돌(17절) : 배심원은 어떤 사람의 유죄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 검은 돌을 사용했으나, 무죄 판결을 위한 투표에서는 흰 돌을 사용했다. 검은 돌은 악명 높은 아시아의 여신 퀴벨레에 대한 상징이었다. 흰 돌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었다.

31

금요일

요한계시록 3장
찬송가 552장

묵상노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2)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사데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서술합니다. 사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1절). 그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 앞에 열린 문이 있으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8절). 그것 역시 행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8절). 이에 그들은 인내했으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함께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10~11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음을 말합니다(14절).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16절). 이것은 주님의 책망과 징계였습니다. 요한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며 교회를 권면합니다(19절).

이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마지막에도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6,13,22절)는 공통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같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20절).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22)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Rev. 3:22)

• 미지근하에(16절) : 찬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목욕하기에 좋았지만, 라오디게아에는 자연적인 물이 부족했다.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온천에서 파이프를 통해 운반된 물은 산에서 조달되는 찬물과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에 이를 때쯤 미지근해졌을 것이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물만은 늘 불안적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또검든 재 즉 목욕을 위해서 아니면 차든지(마치기 위해) 하다면 나는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나는 너희가 물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너희에게서 받는다. 너희가 메스껍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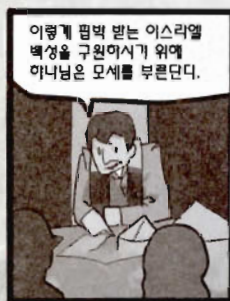
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 세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당신의
지녀 삼아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야



핍박이는 바로로부터 말슬어게
되는 줄에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
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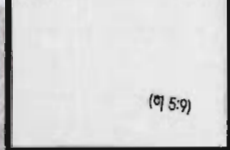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야.



우리들도 구원의 근원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이 말이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9)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안내 2014년 1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이원용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애포]